

2010-05(80)

대외주의



(www.hufs.ac.kr)

2010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 ☐ 이사회 일시 : 2010. 5. 6. (목) 07:30
- ☐ 이사회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1층 페닌슬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

(1)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 산하기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 이남주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김기혁 감사의 내부감사보고를 요청하다.
- 김기혁 감사 : 사립학교법 제19조 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재산상황, 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적사항은 학교와 관련하여 여섯 건 4천383만9천223원이 지적되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지적사항은 없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교내서점 운영시 발생한 감모손실 부분이 지적되었다. 학교기업 i-외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과대 계상, 연구산학협력단은 장기 미정산 연구과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전산장비 등의 고정자산 관리,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는 퇴직적립금 통장관리에 대한 부분이 각각 지적되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계획을 받았으며 2010년 회계감사시 적절히 조치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
- 양인모 이사 : 외부감사인의 진단은 만족스러운 편인지 질문하다.
- 김기혁 감사 : 외부감사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은 국내 대형 회계 법인으로서 수준 높고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 박명석 이사 : 박용일 감사가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 힘들었다고 들었다.
- 김기혁 감사 : 학교법인 감사 중에 공인회계사 모임인 감사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감사 지침을 준다. 그 지침을 바탕으로 결산 감사를 하는데 박용일 감사는 변호사이기에 참가를 못했다. 하지만 업무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회계감사와 별도로 박용일 감사가 업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는 업무감사를 현행처럼 별도로 하는 것이 옳은지 이사회가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학교는 회계감사와 별도로 업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업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서명 : 이남주 의장, 양인모 이사, 박명석 이사, 김기혁 감사, 이주영 감사, 김기혁 감사

- 이남주 의장 : 정관 규정에 의해 감사 2인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2인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 다만 감사 2명이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되 1명은 회계감사, 1명은 업무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별도 일정으로 각각 진행할 것인지는 감사 두분이 의견을 교환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사장이 감사하고 의논을 하겠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재정소위원회 검토 내용 보고를 요청하다.
- 표상용 사무처장 : 5월 3일 재정소위원회에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음을 보고하다.

□ 재정소위원회 검토 의견

- 인건비 현황을 파악하여 타 대학과의 비교표를 제출하기 바람
- 외부감사인 지적 중 사이버외대 소프트웨어 불용 처리 권고에 대하여는 내용연수 도달 전 전액 상각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서점의 경우 도서 분실에 대한 대책으로 CCTV 설치를 권고하였지만 이는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출입문에 도서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 권고
- (주)외대어연은 단기적 수익목표보다 외국어교육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바람
- (주)외대어연 직영학원 추가 설립시 서울 강남권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일산, 목동 등지에서 노하우를 쌓고 진출하기 바람
- 한국외대의 경우 관리운영비는 줄이고, 연구바장학금은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외대 차입에 대한 구성원 우려가 있으므로 외대학보에 용인가숙사 BT0사업과 차입금 내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게재하기 바람
- 출판부는 경영성과가 좋기에 학교 본부 기부금 납부시 1억원 증액하여 기부할 것을 권고
-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의 경우 약어를 쓸 경우 “외대부고”, “외대부속외고” 등으로 “외대”의 명칭이 반드시 혼용 사용되도록 언론사 등에 홍보하기 바람
-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정확히 산정·징수하여 결산 후 반환되는 비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는 노력 필요함
- 사이버한국외대의 경우 홍보비를 증액하여 언론,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권고함

- 양인모 이사 :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용인외국어고등학교”의 약칭이 “용인외고”

서명 : 이남주 양인모 장병국 박성식 김동철 김인환 이근영 박정

로 사용되면 지역성이 강조되어 학교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으므로 “한국외대”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외대 홍보조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

- 곽순석 과장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동원안전시스템(주)의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세히 설명하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09회계연도 수입은 10,256백만원, 지출 8,433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823백만원이며, 동원안전시스템(주)는 수입 4,579백만원, 지출 4,181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98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 김종석 (주)외대어연 대표이사 : (주)외대어연은 2009회계연도에 3,996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3,875백만원을 지출하여 순이익은 12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실제 수익은 약 5억원 가량 발생했지만 약 3억7천만원을 감가 상각 하였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 직영 학원 1곳을 개설하였다. 안산 외대어학원 원장이 기자재, 시설물, 등록 학생 등을 회사에 헌납하여 비용투자 없이 개설하였다. 이로써 분당, 안산에 직영캠퍼스 2개, 프랜차이즈 외대어학원은 전국적으로 52개가 운영되고 있다.
- 박명석 이사 : 회사측에서 프랜차이즈 어학원 개설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원어민강사 교육, 교재개발 등에 신경 써야한다.
- 장명국 이사 : 김종석 i-외대 본부장이 (주)외대어연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상근하고 있기에 급여 내지 수당 지급을 제도화하여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남주 의장 : (주)외대어연 대표이사 급여 문제는 학교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총장과 상의하도록 하겠다.
- 유광희 한국외대 경리팀장 : 한국외대의 2009회계연도 결산(안) 수입은 186,280백만원, 지출 183,212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068 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고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다.
- 장명국 이사 :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 구성원이 한국외대의 부채가 많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부채 내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
- 이남주 의장 : 학교측에서 대학평의회에 결산 자문을 요청하고 보고 하였는데

서명 :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대학평의원회에서 20여개 항목에 걸쳐 세부적인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문을 못했는데 결산(안)이 이사회에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는 결산에 대한 감사의 중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사를 더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결산(안) 처리를 유보할 수 없고 이사들이 논의할 것임을 답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결산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자세히 알려주길 바라고 있으므로 기회가 되면 학교측에서 부채 내역 등을 설명하고 대화 할 것을 주문한다.

- 장명국 이사 : 관계부서에서 학교 부채내역을 대학평의원회에 보내주기 바란다. 대학평의원회는 BTO 사업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의장에게 잘 설명하기 바란다. 외부 회계법인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강하게 감사를 실시한 것과 이사회의 심의 내용도 설명해주기 바란다.
- 박철 이사 :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만났는데 용인기숙사 BTO 사업을 부채로 계상하여 전체 부채규모가 많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현재 학교에서 순수하게 빌린 금액은 75억원이다. BTO는 전적으로 건설회사가 차입하고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한 뒤 학교측에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BTO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결산 승인 받은 내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명국 이사 : 대학평의원회가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필요하면 감사가 의장을 만나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 김기혁 감사 : 대학평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질문 및 의문사항이 있으면 외부감사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미팅은 할 수 있다.
- 이남주 의장 : 감사보고는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학사운영기구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설명 해 줄 필요는 있다.
- 유광희 한국외대 경리팀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괄지원팀 후생파트는 총 수입 3,737백만원, 지출 3,598백만원, 당기운영차액 139백만원이 발생하였다. I-외대는 총 수입 2,174백만원, 지출 2,007백만원이 발생하여 167백만원 당기운영차액이 발생하였다. 통번역센터는 수입 3,090백만원 발생하였고 학교에 기부금 1억5천만원

서명 : 이남주 이종민 장명국 박철 김기혁 유광희 이대영

을 냈다. 출판부는 수입 4,14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학교 기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1,240백만원 지출이 발생하였다. 연구산학협력단은 수입 20,440백만원에 당기 운영차액이 7,142백만원 발생하였다.

- 정균재 사이버한국외대 직원 : 사이버한국외대는 등록금수입 13,019백만원, 전입 및 기부수입 672백만원, 교육부대수입 112백만원, 교육외수입 382백만원 등 총 14,575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은 교직원 보수 3,544백만원, 관리운영비 2,691백만원, 연구학생경비 1,899백만원 지출하였고 투자와 기타자산으로 5,169백만원 적립하였다.
- 이남주 의장 : 사이버한국외대는 교과부 감사 지적사항 중에 한국외대 교사를 무료로 빌려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한국외대 공간을 사이버한국외대로 등기 이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86억원의 기금이 있으므로 사이버한국외대 단독 건물 건립이 시급하다. 건축이 지연되면 은행이자보다 건축 자재비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시급히 건립에 착수하여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 박명석 이사 : 앞으로는 학부보다는 대학원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대는 대학원 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잘 유지되는 편임으로 앞으로 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외대 뿐만 아니라 사이버한국외대도 대학원을 설립·육성해야 할 것이다.
- 나인성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행정실장 : 2009회계연도에 수입은 144억원 발생하였고, 126억원을 지출하여 결산차액은 약18억원이 발생하였다. 결산차액중 수익자부담경비 8억원은 결산보고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된 부분은 없었다.
- 이남주 의장 : 한국외대부속외고의 시설확충을 위해 35억 내지 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 중 고등학교 적립금 10억원, 용인시 지원금 10억원, 사학진흥재단 기채 10억원 등 30억원은 준비가 되었고, 조금만 더 모으면 시설확충 공사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각 기관의 계수보고는 마치도록 하겠다. 재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사회가 그대로 수용하여 해당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겠음을 설명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각 산하학교

서명 :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이남주

(기관)의 감사보고서 채택 및 2009회계연도 결산(안)의 승인 여부를 묻자 불임 원안대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동원안전시스템(주), (주)의대어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후생파트, I-외대, 통변연센터, 출판부, 연구산학협력단,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의대학교부속용인의국어고등학교의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각각 원안 승인하기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 박용일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박용일 감사가 실시한 2009학년도 행정감사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으며 지적 및 권고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하겠음을 설명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